

# 인구 및 가족계획에 관한 연구

## — 태도 및 지식에 관한 —

대한간호 Vol 9, No 3, p. 41~53, 1970

김모임 · 김의숙

1. 가족계획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자가 구교에서 22.9% 이나 타인에게 가족계획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느냐에서 16.4%가 “없다”이고 자신의 종교윤리로 스스로 사용할 수 없으나 가족계획이 필요로 되는 사람에게는 직업적 견지에서 조언하겠다고 반수라 하겠다. 종교가 가족계획에 대한 직업적 의무완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개인의 종교적 양심과 지역사회 공익의 일익을 맡아 종사하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양심을 분명히하여 간호사 자신의 종교 및 선택의 자유와 무관하게 공복으로서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도록 가족계획에 대한, 앞으로 간호사 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역할 및 책임에 대한 교육이 필요로 된다고 하겠다.

2. 우리나라 생정통계가 불비하다는 점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행히 5년마다 인구동태를 알기 위한 “센서스”가 있어 우리나라 총 인구는 몇 명이다 라는 계산이 나오게 되어 있다. 이러한 생정통계나 인구동태통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학문을 하는 학생으로서, 또 인구문제가 심각하여 국시로 삼고있는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나라 총 인구도 비교적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숫자는 귀찮은 것이어서 구태여 생각하고저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면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의 도 및 지식이 낮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 외국에서는, 국민학교 학생까지 자가지방 인구는 얼마라는 것 쯤은 흔히 알고 있어 언제고 물으면 대답할 정도이다.

3. 인구가 배가되는 기간에 대한 지식은 인구문제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면 빼놓을 수 없는 지식이다. 정답이 28%, 즉 소수의 학생만이 알고 있는 실정이며 지역별 큰 차는 이 분야의 교육 및 Information resource 의 격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사업이 인구문제에 끼친 영향 즉 인구증가가 20세기의 문제로 대두된 원인을 과반수의 응답자가 잘못 인식하고 있다. 시정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4. 가족계획 사업이 지방을 위주로 시행되어 왔다는 사실과는 반대로 지방학생들은 인구문제를 국가적 3대 과제로 보지않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서울 응답자들이 인구문제를 국가적 3대 과제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점은 주목을 끈다.

5. 이런 분야에 관여할 전문 직업인이 되고저 하는 사람으로 국가가 가족계획 사업을 정부 프로그램으로 하는것에 대한 의견은 약 65% 정도가 협조적인 반면 26%는 중

간노선에 있고 10% 정도가 정부사업으로 함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적 견지에서 대부분이 (85.6%) 가족계획 사업을 근본적으로 찬성한다고 한다. 이상의 점을 미루어 보아 찬성하는 응답자 가운데도 가족계획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했던 우리나라 가족계획 사업의 이해가 약 65% 정도 미쳤고 약 20%는 이를 완전히 소화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으며 가족계획 사업은 찬성이나 가족계획 사업을 위한 방법론에, 응답자 가운데 이론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6. 졸업 간호사로서 “가족계획을 위해 조언할 수 있다”가 90%나 되는 것은 가족계획 사업에 앞으로 참여한다는 가능성은 보이나 “조언이나 도움을 구하려 오지 않는 사람에게 교육, 권유할 수 있겠다”는 약 75%로 보아 “Reach-out”하는 능동적 적극적 참여도는 낮다고 할 수 있겠다. 찾아와 원하는 사람에게 조언이나 교육을 하는 단일한 태도에서 필요로 되는 사람을 찾아 봉사할 수 있는 능동적 적극적 참여 기풍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7.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이 가족계획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Loop임을 알고 있으나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가족계획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응답이 수위임은 재미있는 사실이다.

Loop 또는 Vasectomy를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나 실용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말하기는 짙은 회의가 서려있음을 볼 수 있다. 응답자의 대부분이 보통 4~5가지 가족계획 방법, Oral Pill, IUD, Surgical Method, Rhythm 등 과반수는 다 알고 있으나 Traditional Method로 특히 Coitus interruptus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가족계획 방법이 부작용이 없고 그 효과가 완벽하여 이미 알고 있는, 한 두가지 방법으로 원하지 않는 임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몰라도 대부분이 한 두가지 점에 있어서 선택 및 변경이 필요함을 생각할때 Modern Method나 Traditional Method 다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간호학생에게 필요하다고 하겠다.

8. 가족계획에 대한 교육이 대부분이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음은 좋은 현상이며 약 80%가 보건간호학에서 가르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강의실 외의 실제실습은 거의 없는 실정인 것 같다. 산부인과 간호학, 소아과 간호학에서도 다소 관계하고 있으나 큰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가족계획과 관련된 임상실습 계획에 있어 이론과 실제를 함께 배울 수 있게 과목계획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가족계획과 관련된 제 분야의 협조를 얻어 우리나라 가족계획사업의 간호사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학습경험을 주는데 이용할 수 있는 가족계획 교육내용 지도서등이 마련되면 한다.

9. 응답자의 지식이 정확할수록 가족계획 사업을 찬성하고 더욱 자신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을 믿어 간호학생들이 간호교육 기본과정을 배우는 동안에 가족계획 및 인구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본교육이 절실이 필요로 된다.

이 연구조사를 통하여 앞으로 가족계획 사업을 참여내지는 관장할 간호학생들의 가족계획 및 인구문제에 대한 태도 및 지식과 지식보급원을 검토해 보았다. 가족계획이 국가적 절실한 과제인데 비하여 인구문제와 가족계획에 관한 관심도는 지식으로 측정

해 보면 낮고 불안하다고 볼 수 있다. 남을 교육하고 권유할 입장에서 일할 이들 응답자들이 자신있게 능동적으로 자기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교육계획이 필요하다.

## 보건간호사의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공중보건잡지 Vol 7, No 2, p. 673~679, 1970

김 정 숙

보건간호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보건 간호사의 심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일련의 연구를 위한 기초단계로서 현 보건 간호사의 성격특성(내지는 자아개념)을 알아 보는 탐색적 연구를 시도하여 서울시내 보건소에 근무하는 78명의 보건간호원의 성격검사를 실시하고 보조적으로 서울시내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119명의 임상간호사의 성격검사와 비교하여 보았다.

지배성, 책임성 등 몇가지 특성에는 일반간호사가 일반성인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타당성 척도 및 안정성 척도 이외에서는 임상간호사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보건간호사가 병원근무 간호사보다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 사려성, 동조성, 남향성, 우월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사실은 성립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두 업무 및 보건간호사의 직업선택 행동에 가설적 해석을 내려 보았으나 본 연구가 지니고 있는 몇개의 제한으로 위의 해석의 타당성 여부는 앞으로의 연구 결과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의 연구에 대하여는 이상적 모델선정 등 몇가지가 암시되었다.

## 농촌보건 간호사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간호 Vol 8, No 6, 1970 p. 41~48

최 흥 옥

1969년 7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보건소 및 10개군보건소와 그 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건간호사 151명에 대한 제반사항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하기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